역 사 일 지

연 혁	연월일	사
		주봉 頭洞으로 出動
第一中隊 前方		주봉 서남쪽 方面에 陣을 設置한 第一中隊는 戰線後
		陣地에 敵의 砲彈 集中射擊을 받아 不得已 後退하
		게 되므로 즉시 確保하기 위하여 砲陣地를 奪還한
第一中隊 出動		12. 15分 田益哲 中隊長 以下 將校 2名, 下士官 2
		名, 編成된 第二中隊는 砲兵 2門과 함께 檜花洞으로
		向하여 出動, 17時까지 陣地 奪還을 完了 射擊態勢를
		整備하고 待期하였다.
第二中隊 前進		주봉洞에 進入하여 出動中이든 第二中隊 五, 六番砲는 右翼 支撐
		陣地에 前進하여 二十人發 發射한 後, 一, 二, 三番砲는 주봉洞에
		待期하였다.
第二中隊 砲撃		前進中인 第二中隊 六番砲 架身破損으로 因하여 事故發生 民間
		人(婦人) 一名 死亡에 付撲滅을 받아 即死
第二中隊 五, 六番砲		此時 前進한 五, 六番砲는 右翼 支撐 方面 守行中인 陣地를 奪還
出動 開始.		하고 待期中이든 砲列을 整理 射擊을 開始함.
主力 出動.		16. 20分 待期中이든 第二中隊 1, 2, 3番砲는 주봉洞에
		不留한 前方에 陣地를 確保 前進中이든 五, 六番砲와
		合流.
我軍 後退		15時 半에 我軍 步兵은 敵戰車의 集中攻擊을 받아 退却하여
		온 關係로 第二 集中射擊을 받아 不得已 後退中이라고
敵軍 砲兵 出動		또 前進하라는 命令에 依하여 주봉洞에 到着한 後 敵軍의

18—1 육군 양식 1960 6.28

CONFIDENTIAL

10-24-64A-17-1

10-24-64A-17-1

역 사 일 지

연 혁	연 월 일	기 사
		[redacted] 부대는 [redacted] 지점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redacted] 부대는 [redacted] 지점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적장갑차량 출현		부대정면 [redacted] 지점에 적장갑차량 출현
이 동		부대는 [redacted] 지점에 도착하여 방어준비
적공군기 출격		적공군기 출격
진지이동		부대는 [redacted] 지점에 도착하여 방어준비
적군([redacted]부대)		적군([redacted]부대) 부대정면 [redacted] 지점에 출현

18-1 (1968.6.28)

역 사 일 지

연 혁	연월일	기 사
移動完了	1950. 6. 26.	晉州出発後의移動으로 一時頃 洪川에 到着한 第二中隊는 第一陣地(第二中後 補強)에 配合 警戒待機中
陣地移動		三時着川駅右側에 陣地를 第一中隊는 敵砲撃投下에 地形不利로 因하여 昭陽路 二街二洞合事務所 前面에 陣地를 移動하고 射擊態勢를 取하고 있음.
原隊復歸		配屬學校學生 敗後 三時配屬學校 派遣中인 李鍾碁 文財 朴栄浩 中尉 南燕孔 文財 鄭五敬 中尉 李時會 中尉 李基栄 中尉 朱龍成 中尉 七名은 本隊復歸 開始와 同時에 敵陣地 前方 本隊의 部署에 配置하여 戰斗를 指揮함.
第一中隊射擊開始		五時頃 陣地를 構築한 第一中隊는 射擊을 敗始함 敵小砲를 發見한 一中隊는 中後射擊으로 敵小砲의 破壞與否를 不明이나 敵은 沈默함.
一中後射擊		五時三十分 敵은 砲兵支援을 받아 北漢江 以南 高地에 敵增員 集中 配置. 敵의 一部는 昭陽江을 渡河하여 第一中隊의 一部의 陣地를 目指 敵의 潛伏地點에 集中射擊을 加함.
三中後射擊		一方 洞川에 到着한 第一陣地의 構築을 끝낸 第三中後는 前方 戰車砲兵의 支援不利함을 支援하기 위하여 陣地를 移動 第二陣地에 約四千Y0 前進하여 中後射擊을 開始 終日 繼續射擊 約四百發을 敵을 殲滅시킴

10-24-64A-17-1

역 사 일 지

연 혁	연월일	사
戰況 (中後)		11時40分 龍山里附近의 敵野砲, 山砲等의 砲擊은 始初 戰車後尾 一等中士 金興基 仁川 李龍雲 仁川 李龍雲 同地區東 四名之 破片을 받아 負傷함. 玉山浦 附近의 敵의 山砲는 15時부터 再次 猛射擊을 開時 하였으나 敵彈이 我陣陣을 破壞, 머기성 等 損失外 二名負傷 18時 射擊開時中止. 21時 陣地를 敵에게 發見當한 關係로 前日陣地로 各州 駐屯附近에 再次陣地를 占領 射擊準備를 取하고 있음. 14時 30分頃 前面에 敵偵察의 迫擊砲) 小銃等 機關 銃集中射擊을 받아 不得已 後退 (退로 하여 重要 建物을 破壞 함에 始作함. 今日戰闘에 敵山砲 投彈数 約 120發
戰果		步兵發後 (敵) 來詩 11:50分 敵野砲陣地發見 我对戰車砲外 援助射擊으로 砲二門 完全破壞. 第二中隊 9:30分 敵彈 500YD 附近에 投彈함으로 射擊을 暫時中止. 10:00時 再射擊을 開始함. 11:30分 射擊中止 (敵彈陣地가 飛來함을 因함) 11:55分 敵裝甲車 出現으로 中隊射擊 開始. 13時 30分 射擊中止 (敵彈陣地에 飛來함으로 因함) 20時 我中隊陣地에 敵彈이 投下함으로 我陣地를 奪取 하려

18—1 육군 양식 1960. 6.28

육군인쇄공장

역 사 일 지

연 혁	연월일	기 사
		警戒陣地에 陣地를 移動
		23時 中隊는 本大隊警戒陣地으로 부터 출동하여 半時間으로
		元陣地에 陣地를 移動함.
		23時30分 陣地築城을 完了
		24時 40分 敵射擊開始 敵彈은 我中隊陣地 周圍에 集中
		됨으로 부터 確認不可能함 (突擊積載車 6台 名退)
		第二中隊
		敵의 夜襲을 利用하여 奇襲企圖를 함으로 元陣地부터 約 8粁
		地點 名方里 洞川部落 自衛隊에 一旦 名退, 翌日 準備의
		萬全을 期하였음.
	6. 27	0時 30分 第二中隊는 中隊射擊을 開始. 一時 地形不利
第二中隊		로 師範學校 校庭으로 名退
		五時 陣地를 出發 (元陣地로 부터 場으로 移動)
		五時三十分 射擊開始 (第一中隊誤射로 因하여 我中隊
		OP 危險함)
陣地移動		六時三十分 第一中隊는 春川取水陣地로 부터 鳳儀國民
		學校 庭으로 陣地 移動射擊中 敵의 熾烈한 砲集中
		射擊을 받아 本大隊警戒線으로 부터 陣地를 移動함.
中隊射擊開始		七時三十分 第一陣地에 到着하여 射擊態勢에 萬全을 期
		하고 八時 六時三十分에 射擊을 開始.

18—1 육군 양식 1960. 6. 28

육군인쇄공

10-24-64A-17-1

10-24-64A-17-1

역 사 일 지

연 혁	연 월	기 사
		目標 三千YD前方의 敵을 攻擊하기 위해 20門 모두가 百發
		百發射擊하였다 前方我步兵의 大部分은 발이 빠져 動하기
		我中後陣地에 集結하여 射擊을 二時中止하고 步兵은 前進을
		受하고 보병들이 有利한 狀態에 이르게 不得已 我中後陣地를
		옮기고자 약 3000YD 地點에 移動하여 敵情을 探知中
陣地移動		七時45分에 第一中隊는 前方약 500YD 前進하여 師範學校
		東方附近에 陣地를 占領하고 射擊中 九時40分 陣地를 利
		用 火器場附近으로 移動하여 射擊함
中隊戰況		九時三分 敵彈 OP 附近에 떨어짐 이상무
		九時四分 師範學校 운동장에 到着
		九時20分 各戰車 新陣地 變更 陣地移動 完了
		二時三分 突然 敵機 出現하였으나 退却
		二時25分 1KM 地點 東山面에 移動
		雨天으로 因하여 路面 特悪
中隊戰況		11時三分 敵戰車 砲射擊 및 迫擊砲 射擊으로 各戰車
		新陣地 變更 陣地移動하여 屋後山에 直接射擊
		敵砲兵의 一部는 殲滅하고 二時30分(戰死)
		二等中士 高昌烈 金古俊 負傷함
		二時40分 東山面附近에 移動待期中
三中隊戰		第二陣地 到着 射擊中 步兵의 前進을 因하여 進出
		移動開始 하였으나 前進 九千YD 地點까지 約三時

18-1 육군 양식 1960. 6. 28

육군인쇄공

역 사 일 지

연 혁	연 월 일	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7 戰 果		~~時刻猛射的中目標에 不得已 射擊中止~~ 第1中隊는 敵裝甲車 一台 竜山里附近에 敵山砲 一門 擊破. 第2中隊는 敵山砲 二門擊破 第3中隊는 未詳
8 中隊戰況	6. 28	1時 20分 第1中隊의 名洛課는 東山里 出發前에 諸 第3段階 完了에 到着하여 暫時 休息中 又時 五指의 諸川 第3段階 完了은 四山 諸川 代村 西北 1.5粁 附近의 陣地를 占領함 (七時 三分) 八時 十五分 我戰車 支援射擊을 開始. 九時 敵裝甲車 一部隊가 對岸에 射擊을 開始. 十一時 四分 敵山砲 一門射擊
9 中隊戰況		8時 第3中隊는 前日陣地에서 東山里東端附近의 陣地를 急移動中 東北端 高地에서 敵戰車 2台와 我軍 八名과 民間人 三名의 負傷者를 내었음 19時 東山面 所在地 前方 770 YD 地點에 陣地移動 19時 30分 射擊 開始
10 三中隊戰況		又時부터 射擊을 開始함과 동시에 支援射擊이 前進하여 我中隊는 四名의 犧牲者와 總攻擊을 시작하여 一定한 位置에서 最後 更新射擊을 發射하였음 (18:00發)
11 戰 果		~~[1中隊]~~ ~~敵裝甲車 二門擊破~~

18-1 육군 양식 1960. 6. 28

육군인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10-24-64A-17-1

10-24-64A-17-1

역 사 일 지

인 혁	연월일	기 사
		~~敵砲兵陣地 第一次時 敵砲兵 射擊 約700名~~ 第二中隊
		敵裝甲車二門 擊破 (13時~15時)
		敵一個中隊의 編成된 大部隊 (某學校에 集結) 砲擊 殲滅함
	6. 29 (晴) 末	八時 15分 敵 戰車 及 迫擊砲 陣地에 對하여 射擊
		10. 15分 空中 衝突로 因하여 車輛數 中隊長 陸軍 大尉 金長根. 外 3名 戰死
		18. 20分부터 20. 20分 間에 敵砲兵에 對하여 射擊
第二中隊 戰況		2時頃 東山面事務所 附近의 陣地로부터 洪川에 이르기까지 3時間 退却하고 2時 30分 以後 洪川은 東山面 方面陣地 方面으로 出動함.
第二中隊 戰況		13時 15分 中隊長 代理 陸軍中尉 田昌益 敵戰車 攻擊하여 夜間에 頭部 負傷 入院 當時 戰況 外 四名의 士兵 負傷
		15時 前方 見晴地로 轉出 後方 陣地로 移動 退却
		射擊 彈藥 消費數 約 700發
9 戰果 (第一中)		敵砲兵 射殺 一個中隊, 擊破 二個中隊
		16. 40分 敵戰車 一台 及 裝甲車 一台 破壞 敵騎兵 射殺 三名. 敵砲兵 射殺 一個中隊. 其他 自動車 陣地等 本村 附近 破壞.
	6. 30	8時 洪川 ~~三軍~~ 本部 第二中隊 第三中隊 合流 歸隊

18—1 육군 양식 1960. 6. 28 육군인쇄공창

-77-

❑ 부대역사일지 (16포병대대, p.9 ~ 18)

연 혁	연 월 일	기 사
사 변	1950. 6. 25	적은 38선지구 발산에 불의 침□하여 본대는 오전 5:30분 비상경계에 돌입. 장교 및 외출사병을 소집. 수송부에서는 차량운행 점검. 급유 준비. 병기과에서는 유탄포 실탄을 자동차에 적재 준비. 출동 준비. 각 중대에서는 출동명령까지에 소총 및 유탄포에 손질□□을 기함. 내무위병은 제1중대근무로부터 출동 준비 관계 상 대대 본부중대와 교대함. (8시)
적탄 투탄		8시 30분 경 부대로부터 4,000YD 거리(용산리) 부근에 적 박격포탄 투탄 개시함.
출동 (1중대)		8시 30분 제1중대는 장교 2명, 사병 85명으로 편성. 적을 격파코자 옥산포 방면에 출동, 진지 점령함.
아 보병		제7연대 9중대는 "고탄" 및 사북지서 일대를 수비 중이며 제12중대는 최일선에 급파 중.
적 상황		적은 전차 8대, 포 8문의 전위대대를 소유한 소제 인민군 함흥 제2사단이라 함. 아 포병은 지형 불리로 인하여 약간 후퇴라 함.
아 포격 개시		9시 15분 제1중대는 사북지서 부근을 목표로 사격을 개시함.
출동 (2중대)		9시 30분 제2중대는 발산지구 적을 격멸코자 춘천시 후두동으로 출동

연 혁	연 월 일	기 사
제1중대 이동		10시 옥산포 방면에 진을 설치한 제1중대는 전포대 부근에 적의 포탄 집중사격을 받아 부득이 후퇴하여 시내로 들어와 춘천역 우측에 포진지를 점령함.
제3중대 출동		12:15분 전창익 중대장 이하 장교 3명, 사병 65명으로 편성된 제3중대는 포 4문으로서 시내 근화동 2구 지점에 출동. 13시까지 진지점령을 완료. 사격태세에 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음.
제2중대 포 전진		우두동 근방에 출동 중이던 제2중대 5, 6번포는 신북지서 부근에 전진하여 28발 발사함. 제1, 2, 3번 포는 우두동에 대기 중임.
제2중대 포 고장		전진 중 제2중대 6번포 가신 파손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민간인(掃人) 1명 가신에 타박상을 받아 즉사.
제2중대 5, 6번포 사격 개시		15시 전진한 5, 6번포는 신북지서 좌측 옥수수 밭에 진지를 점령하고 대기 중. 드디어 포문을 열어 사격을 개시함.
진지 이동		16:30분 대기 중이던 제2중대 1, 2, 3번포는 우두동에 부변전소 전방에 진지를, 난동 전진 중이던 5, 6번포도 합류.
아 보병 후퇴		15시부터 아군 보병은 적 전차대 출현 및 적 포, 박격포, 경기관총 등의 집중사격을 받아 부득이 후퇴 중이라 함.
적 장갑차 3대 격파		옥산포 도로 상에 출현. 점차 시내로 향하여 돌진하는 적 장갑차 6대를 발견한 아군 대전차포는 맹사격을 개시하여 그 중 3대 폭파하였음.

연 혁	연 월 일	기 사
적 장갑차 직접 사격		우두동 방면에 대기 중인 아 2중대는 신북지서 부근 도로 상에 출현, 시내로 돌진하는 적 장갑차를 발견하여 직접사격 개시.
이 동		춘천시내 근화동 2구에 대기중이던 아 3중대는 홍천지구 급보에 접하여 17:30분 홍천지구로 이동함.
아 보병 19연대		17시 보병 19연대 응수부대(1개 대대)는 추적에 분□하여 춘천에 도착. 북한강을 도하. 적에 접근 중. 제2중대 계속 야간사격 중.
진지 이동		18:30분 제2중대는 적탄 집중 수탄으로 인하여 주진지인 우두동 부변소 앞에서 춘천시내 중앙로에 진지를 이동. 제2중대장 중위 이금열 말라리아로 잠시 퇴진함. 22시 사격준비 완료 및 개시.
전 황 (제1중대)		1. 23시 제19연대 후속부대(2개 대대) 도착. 2. 야음을 이용한 적은 아 보병 각 대대 및 1선 각 대대 및 각 중대는 분산상태에 빠져 보병 간 및 포병 각 대대 간에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불능으로 지원사격에 다대한 지장을 받음. 3. 장병은 사기 극히 왕성하나 지형은 절대 불리함. 4. 옥산포 일대는 화재로 화염충천하고 있음. 5. 보병 야간에 아 진지 침입, 침구 및 기타 일절 탈취하였음.

연 혁	연 월 일	기 사
이동 완료	1950. 6. 26	춘천을 출발, 야간이동으로 1시 경 홍천에 도착한 제2중대는 제1진지(제2중대 구축)에 포를 설치, 대기 중.
진지 이동		3시 춘천역 우측에 진을 둔 제2중대는 적 탄 투하와 지형불리로 인하여 소양로 2가 2동 회사무소 전면에 진지를 이동하고 사격태세를 취하고 있음.
원대 복귀		포병학교 학생 귀대 2시 포병학교 파견 중인 이만호 대위, 박영□ 중위, 남연구 대위, 정오경 중위, 강기회 중위, 이기영 중위, 송용성 중위 7명은 피교육중, 전투개시와 동시 귀대하여 각각 본래의 부서에 □하여 전투를 지휘함.
제2중대 사격 개시		5시 10분 불효를 기하여 제2중대는 사격을 개시함. 적 소포를 발견한 1중대는 중대사격으로 들어가 적 소포의 파괴 여부는 불명이나 적은 침묵하였음.
1중대 사격		5시 30분 적병은 포의 지원을 받아 북한강 소천을 도하하여 와□리 □천리 부근에 잠복. 소양강을 도하 기도함을 발견. 제1중대는 일제히 포문을 열어 적의 잠복지대에 집중사격을 가함.
3중대 사격		1방 홍천에 도착하여 제1진지에 대기 중인 제3중대는 전방 아군 보병의 교전 불리임을 지원코자 6시 불음을 기하여 제1진지에서 약 4천YD 전진하여 중대사격을 개시. 종일 계속 사격. 약 4백발로서 적을 전멸시킴.

연 혁	연 월 일	기 사
전 황 (1중대)		11시 45분 용산리 부근의 적 야포, 산포 등의 포격을 받아 전투대원 2등중사 김흥선, 하사 이설세, 하사 이재운, 동 조인동 4명은 파편을 받아 부상함. 옥산포 부근에 적에 산포로 15시부터 재차 맹사격을 개시하였는 바 적탄이 아군 진을 파괴. 여기서 강복구 외 2명 부상. 18시 사격 잠시 중지. 21시 진지를 적에게 발견당한 관계로 전일 진지인 춘천역 부근에 재차 진지를 점령. 사격자세를 취하고 있던 중, 17시 30분 경 전면에 적 보병의 박격포, 소총 등 치열한 집중사격을 받아 부득이 후퇴. 적은 시내 중요□물을 포격하기 시작함. 금일 전 간에 적 산포 투탄□ 약 120발.
전 과		보병 살상 (적) 미상. 11:50 적 야포진지 발견, 아 대전차포와 협조사격으로 포 1문 완전 파괴. 제2중대 09:30 적탄 500YD 부근에 투탄함으로 사격을 잠시 중지. 10:00 재사격을 개시함. 11:30 사격 중지.(적탄 진지에 날아옴으로 인함) 11:55 적 장갑차 출현으로 중대 사격 개시. 13:30 사격 중지.(적탄 진지에 날아옴으로 인함) 20시 아 중대진지에 적탄이 투하됨으로 아 진지를 춘천사범학교 부근에 진지를 이동.

연 혁	연 월 일	기 사
전 과		23시 중대는 다시 시범학교 부근으로부터 효자동 우시장으로 주진지에 진지를 이동함. 23:30 진지 축성을 완료. 24:40 적 사격 개시. 적탄은 아 중대진지 주위에 집중됨으로 실탄보급 불가능함.(실탄 적재차 2대 후퇴) 제3중대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기습 기도를 함으로 주진지로부터 약 8천yard 후방인 홍천군 두천면 장단리에 일단 후퇴하여 명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음.
	6. 27	0시 30분 제2중대는 중대사격을 개시. 1시 지형 불리로 사범학교 교정으로 후퇴.
제2중대		5시 진지를 다시 (원 진지인 우시장으로 이동), 5시 30분 사격 개시(제1중대 오해로 인하여 아 중대 OP 위태하였음.)
진지 이동		6시 30분 제1중대는 춘천역 부근 진지로부터 봉의 국민학교 교정으로 진지 이동사격 중 적의 치열한 포 집중사격을 받아 다시 사범학교 남방에 진지를 이동함.
3중대 사격 개시		6시 3중대는 제1진지에 도착하여 사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 중, 6시 30분 드디어 사격을 개시.

연 혁	연 월 일	기 사
		목표 6천YD 전방의 적을 공격.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백발을 발사하였으나 전방 아 보병의 실수로 말미암아 적탄을 아 중대진지에 강[?]하여 사격을 1시 중지함. 보병은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하여 후퇴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아 중대로 진지를 옮기고 후방 약 8,000YD 지점에 이동하여 적정을 탐지 중.
진지 이동		7시 45분 다시 제1중대는 전방 약 500YD 전진하여 사범학교 동방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고 사격 중. 9시 40분 진지를 다시 춘천 화장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사격함.
2중대 전황		9시 30분 적탄 OP 투탄으로 하사 이규순 파편에 부상. 9시 45분 사범학교 교정으로 진지를 이동. 15시 30분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진지 이동. 포 축성. 20시 30분 돌연 적 장갑차 출현으로 퇴각. 22시 춘천에 16Km 지점인 동산면에 이동. 우천으로 인하여 노지 대기.
1중대 전황		11시 30분 적 전차포 사격 및 박격포 투탄으로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에 진지를 이동하고 봉의산에 직접사격. 적 포편에 일등병 장학진은 13시경 (전사) 2등중사 고창열, 김태준 부상함. 20시 45분 동산면 부근에 이동 대기 중.
3중대 전황		제2진지 도착. 50발 사격 중 보병의 후퇴로 인하여 홍천 근교까지 후퇴. 다시 전진 9천yd 지점까지 가서 약 3시간 동안 맹사격 후, 일몰하여 부득이 사격 중지.
전 과		제1중대는 적 장갑차 1대 용산리 부근에 적 산포 1문 격파. 제2중대는 적 산포 2문 격파. 제3중대는 미상.

연 혁	연 월 일	기 사
1중대 전황	6. 28	1시 25분 제1중대와 명□각□는 동산면을 출발하여 홍천 제2연대 병사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함. 6시 50분 홍천 제2연대 병사를 떠나 홍천 대촌면 성소리 부근에 진지를 점령함. (7시 30분) 8시 15분 아 전 보병 지원 사격을 개시. 10시 적 장갑차에 부대에 대하여 사격을 개시. 11시 40분 적 산포 1문 격파.
2중대 전황		8시 제2중대는 전일 진지에서 동산읍사무소 부근에 진지를 이동 중. 차 및 포 전복으로 인하여 6번 포와 아 병사 8명 외 민간인 3명의 부상자를 내었음. 19시 동산면 소재지 전방 30YD지점에 진지 이동. 19시 30분 사격 개시.
3중대 전황		6시부터 사격을 개시. 보병은 사기충천하여 전진하여 아 중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총공격으로 들어가 종일 일정한 위치에서 최고 실탄사격을 발사하였음. (18:00발)
전 과		제1중대 적 장갑차 1문 격파. 적 포 병력 집결소를 사격하여 적 보병 사격 死 약 300명. 제3중대 적 장갑차 2문 격파. (13시~15시) 적 1개 연대로 편성된 대병력을 (모 학교에 집결) 포격 치멸함.
	6. 29 (갬) 목	8시 15분 적 산병 및 박격포 진지에 대하여 사격. 10:15분 찔차 충돌로 인하여 차 사고. 중대장 육군 대위 김장근, 대위 남연구 약간 타박상을 받음. 18:30분부터 20:20분 간에 적 보병에 대하여 사격.
제2중대 전황		3시 경 동산면사무소 부근의 진지로부터 홍천에 이르기까지 3시간 가면하고 6시 30분 다시 홍천을 떠나 동산면 원진지 방면으로 출동함.

연 혁	연 월 일	기 사
제3중대 전황		13시 15분 중대장 대리 육군 중위 전창익 적탄 포편에 의하여 두부 포열을 당하여 전사. 외 4명의 사병 부상. 5시 신내리 진지로부터 성내리 진지로 이동. 계속 사격. 실탄 소비 수 약 100발.
전 과 (제1중)		적 보병 사살 1개 중대, 격퇴 2개 중대. 16:40분 적 전차 1대 및 장갑차 1대 파괴. 적 기병 사살 30명. 적 보병 사살 1개 중대. 기타 박격포 진지 및 □개소 파괴.
	6. 30	8시 홍천으로부터 본부 제1중대, 제3중대는 횡성군 횡성면 123지점인 소림지대 도착.
참 고		1. 보병은 포병에 대해서 과대한 의뢰를 한다는 점과 보병 제1선에 포병 제1선이 동일하다. 그리고 보병은 포병에게 너무 무리한 사격요구를 한다. 2. 횡성군수 부인은 아군대 대차에 애아가 전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판계으로써 국군의 노고를 위로하며 서 싸워달라는 부탁으로 비애의 기상이 없음은 실로 대한 부인의 미행이며 장병에 큰 감명을 주었음.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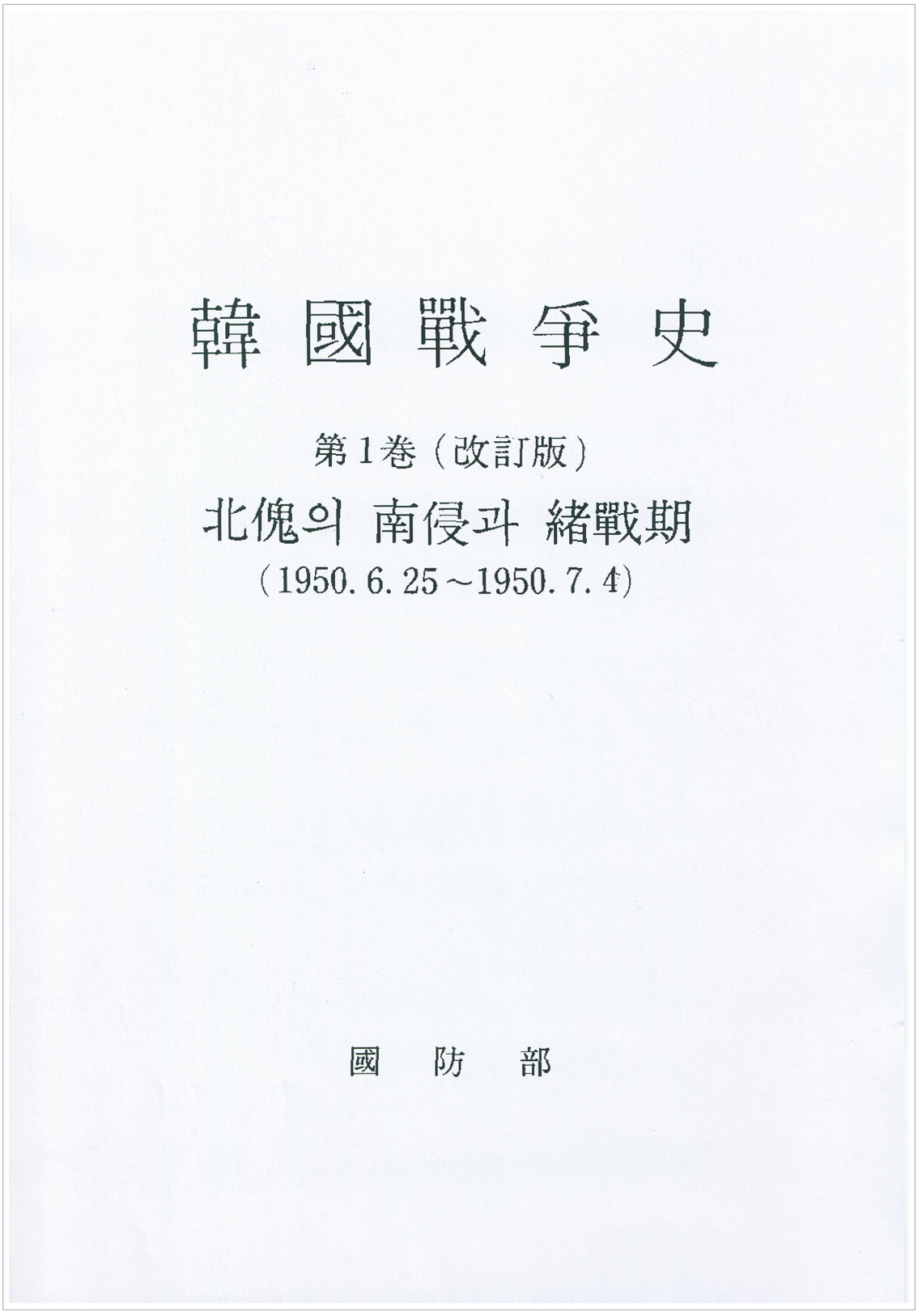
④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2권 (1968)

한국전쟁사(1968)

발 행 일	1968. 12.30
서 명	『韓國戰爭史 第2卷 : 北韓 傀儡軍의 南侵』
저 자	육군소령 김재성
발 행 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심일 관련 내용	· 심일 소위는 중대장이 일언무모함을 말하였으나 특공조를 조직하여 자주포 2대를 파괴하였다고 언급됨
주요 내용 (원문 표기 어법 준수)	· 본 책자는 1967년 발간된 제1권 『해방과 건군』에 이어 1968년 제2권으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된 공간사이다. 발간사에 따르면 제2권은 면담사료에 많은 의존을 했으며 전투는 관계된 10명의 면담 내용이 시간, 장소, 인물 및 상황자체가 모두 틀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 **심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정오경에 적의 SU76자주포 10대가 17번도로를 따라 옥산포로 남하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57mm 대전차포중대(중대장 송광보 대위, 육사5기)의 2문의 포가 심일 소위 지휘하에 배치되어 있었다. 선두에 나타난 2대의 자주포는 500m 거리에 이르렀을 때 2문의 포는 1번, 2번 자주포에 사격을 가하여 첫 발에 명중시켰다. 적의 전차는 꿈적도 않고 다시 굴리오기 시작하였다.(이때만 하여도 아군은 T-34전차와 SU-자주포를 구별하지 못하며 자주포도 전차로 오인하였다.) 이어서 사격은 계속되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 포차지를 발견하고 응사하여 왔다. 소대장 심소위는 중대장에게 육탄공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자신이 그 임무를 맡겠다고 하였다. 중대장은 일언무모함을 말하였으나 심소위의 결심이 비상함과 또한 절박한 상황 하에 그의 용기를 꺾을 수가 없었다. 심소위는 수류탄과 사이다병에다 휘발유를 준비하고 대원중 5명의 지원자를 선발하여 수로를 따라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심소위는 공격장소에서 잠복하고 대원은 엄호위치에서 대비케 하였다. 자주포 2대가 엄호위치에서 서서히 전진하고 있었으므로 공격에도 용이한 1번 자주포를 통과시키고 2번 자주포에 대하여 **궤도에다가 수류탄과 휘발유병을 던졌다.** 이어서 선두 차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였다. 2대의 자주포는 궤도가 파괴되고 1대 자주포는 화염을 일으켰다. 포탑의 뚜껑을 열고 내미는 차장은 엄호대원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불과 1분간의 행동에서 심소위는 2대의 자주포를 파괴하고 대원과 더불어 수로를 타고 진지에 무사히 돌아왔다.'(pp.154~155)

4 - 2

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1977)



韓國戰爭史

第1卷 (改訂版)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1950. 6. 25 ~ 1950. 7. 4)

國 防 部

거주 장병을 소집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연대장으로 부터 出動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장교 및 하사관은 집합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外泊중이었으므로 연대의 街頭방송으로 일부의 병사들은 出動시간에 맞추어 돌아갔고 나머지는 昭陽江 北岸의 戰場으로 직접 달려갔다.

대대장은 말하기를『敵은 우리 연대를 正規軍으로 공격하는 듯 하다.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고 활박하게 強調하고 즉시 昭陽江을 건너 07.00에는 △128로 부터 △164에 이르는 線에 縱深으로 방수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仁嵐里 및 富昌里쪽으로 敵의 侵透가 예측되는 길목을 重點扼守케 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同 대대에 화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제3대대 제12중대를 松峴里(玉山浦 南쪽 1km)로 추진시키고 부연대장 崔泳洙 중령으로 하여금 火力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때에 敵은 SU-76 自走砲를 앞세우고 5번道路를 따라 침공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57mm 대전차포 중대장 宋廣保 대위는 제2소대(장、沈 鎰 소위)를 俗稱 보대이벼루 渡船場(池內里 南쪽 1.5km)로 급파하여 絶壁과 S字形 屈曲地點을 이용하여 砲를 放列하자마자 2彈을 발사하여 모두 敵 戰車에 命中하였는데도 끄덕도 하지않고 계속 밀고 내려옴으로써 부득이 砲를 거두어 玉山浦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때부터 대전차포의 기습공격을 意識하였음인지 尖兵을 앞세우고 區間약진으로 침공하여 10.00에는 그 先頭가 玉山浦에 도달하였다.

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그들의 企圖를 알아 차리고 1개소대를 차출하여 이들과 접촉시키면서 司農洞 쪽으로 誘引하여 그들 主力의 中腹部가 露出되기를 기다렸다.

이즈음 제16포병대대 제2포대장 李今烈 중위는 出動준비가 완료된 제3포대에서 2문을 이끌고 司農洞으로부터 敵前 500m에 추진방열하고 사격명령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윽고 12.00에 敵의 主力이 玉山浦를 통과하고 그 腹部가 넓은 보리밭에 드러 내 놓았을 때 대대장으로부터『사격개시!』口令一下에 步砲協同으로 一齊사격을 加하면서 躍進하였다.

無風地帶를 가듯이 意氣揚揚하게 南下하던 敵은 불의에 강습한 대대의 挾擊에 걸려들어 右往左往하다가 많은 遺棄屍體를 남겨 놓은 채 望風散走의 기색을 엿보이자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대대장은 陣頭에 나서 계속 突進을 號令하여 순간에 池內里線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牛頭山에서 戰鬪의 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대대가 砲支援거리 밖으로 벗어날 우려와 대대의 側方이 露出될 것을 염려하고 主陣地로 복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대대는 13.00에 主陣地로 돌아와서 다시 방수를 굳혔다.

沈鎰 小隊의 肉迫攻擊隊 : 敵은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고 침공이 頓挫되자 이번에는 SU

-76 自走砲(T-70 型 戰車의 變型) 10臺를 몰아 14.00에 다시 玉山浦로 밀어 닥쳤다.

병사들은 戰車의 威勢에 놀라 戰戰兢兢하고 연대장과 참모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귀추를 注視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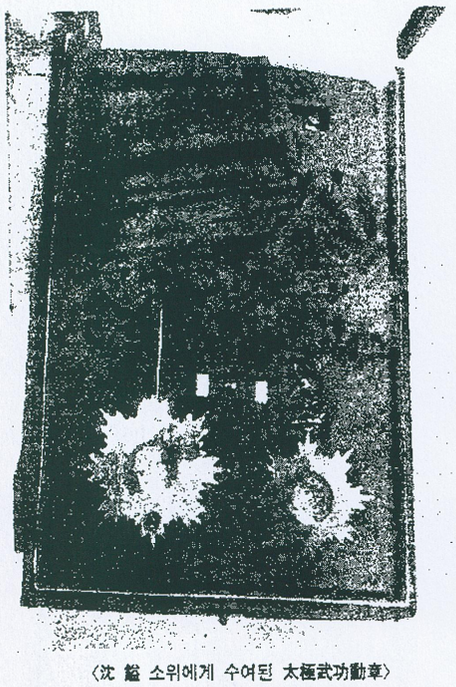
이때 玉山浦로 철수한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 沈 鎰 소위는 砲를 放列하고 한숨을 돌리려는 刹那에 『戰車가 나온다. 戰車가 나온다.』는 병사들의 고함소리에 놀라 前方을 응시하였던바 과연 2대의 戰車가 먼저 눈에 띄었다.

2번車와 3번車의 사이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同 소위는 즉시 포위치로 돌아가 사격준비를 명령하고 사거리를 측정하였다.

200m, 150m, 100m 드디어 사격개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불꽃이 튀면서 1번車에 2발이 命中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움칠하고는 다시 踏破하기 시작하면서 砲火를 휘두르는 것이었다. 이를 악물고 이를 지켜본 沈 鎰 소위는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리 준비하였던 휘발유瓶과 수류탄을 움켜쥐고 決死를 自願한 대원 5명을 이끌고 쏜살같이 敵戰車를 向하여 突進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戰車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그는 병사들에게 『내가 뒤따르는 2번車를 습격하고 다음에 1번車를 박살낼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掩護하라.』고 지시하고 水路를 따라 一步一步 接近하여갔다.



〈沈 鎰 소위에게 수여된 太極武功勳章〉

1번車와 2번車의 車間거리는 20m, 同 소위는 1번車가 앞을 통과하자마자 2번車의 砲塔 위로 올라가 수류탄과 휘발유병을 집어넣고 이어서 1번車로 달려가 같은 方法으로 습격하니 2대의 戰車는 순간에 화염으로 휩싸였다.

이에 당황한 몇 戰車兵들은 戰車에서 뛰어내려 逃走하려 하였으나 掩護하던 병사들이 한놈도 남김없이 사살하고 후속하던 8대의 戰車는 先頭戰車가 화염에 싸여 爆發音이 震動하자 北쪽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으니 이를 지켜보던 我軍진지에서는 一齊히 환호성이 터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號泣하였다.

더우기 牛頭山에서 이 情景을 내려다 보던 연대장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은 한참동안이나, 말문이 막힌채 茫然한 시간이 흘렀다고 포병대대장 金 聖 소령은 술회하였다. 한편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沈소위가 肉迫공격으로 戰車 2대를 파괴한 사실은 6.25가 난지 몇 시간이 안되지만 이것이 처음일 것이며, 우리 장병들은 그때부터 戰車를 파괴할 수 있다는 自負心을 갖게 되고 뒷날에도 많은 戰車를 古鐵化 시켰다.』고 證言하였다.

沈 鎰 소위는 이 功勳으로 1951년 9월 17일 創軍以來 처음 軍最高의 榮譽인 太極武功勳章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해 1월 26일 中部戰線에서 散華하여 이미 故人이 되었으므로 그의 父親 沈基淵이 대신하여 李承晩 大統領으로 부터 勳章을 받았다.

대대의 反擊 : 敵은 步戰協同侵攻이 頓挫되자 이를 만회하려고 미친듯이 砲擊을 함으로써 대대는 물론 牛頭山까지도 敵彈이 雨注하여 寸步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16.00에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그들이 기어코 昭陽江의 北岸을 탈취코자 狂奔하고 있음을 看破하고 공병 1개중대와 연대본부 행정요원으로 보수공사를 마친 鳳儀山으로 연대觀測所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포병대대도 南岸으로 陣地轉換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포병대대는 17.00에 제1포대(장, 金長根 중위)가 春川驛 앞으로, 제2포대(장, 李今烈 중위)가 鳳儀山 뒤로, 그리고 제3포대(장, 鄭五敬 중위)가 牛市場으로 각각 전지를 轉換하였는데 이때 대대의 관측소는 鳳儀山에 설치 하였다.

18.00에 이르러 敵의 정찰活動이 活潑化하자 대대장은 필시 그들은 夜間공격을 기도할 것이라고 추단하고 錯雜한 現 지형조건으로 보아 敵을 먼저 破摧하는 것만 못할 것이라고 구상하고 있던 무렵에 제19연대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가 대대의 左제1선으로 증원되어 錦山一帶에 展開하고 있다는 通報를 接하게 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대대장은 장병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19.00부터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敵도 5번道路로 침공하였다가 潰滅的인 타격을 받은데에 衝擊을 받았음인지 이번에는 5번道路 兩側에서 南北으로 흐르는 小川과의 사이로 펼쳐진 俗稱 가래모기의 보리밭을 따라 그 銳鋒을 돌려 침공하였다.

彼我의 激突은 삽시간에 이루어 졌다. 옴폐나 차폐물 하나없는 곳으로 밀려드는 1개연대 규모의 敵에게 증강된 대대의 전 중화기와 개인화기는 一齊히 사격을 퍼부었으며, 이와 함께 全 砲兵도 관측할 사이도 없이 目測으로 맹격을 가하여 敵을 완전히 도가니로 몰아 넣고 두들겼다.

그들에게 發砲할 기회도 주지 않고 때려 부수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悲鳴소리가 높았다.

이때에 포병은 射距離가 짧아 대대와 前進 後退를 같이하면서 步兵과 同列에서 步砲協同으로 포격하니 끝내 이들 大群은 潰滅直前에 놓이게 된듯 하였다.

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戰機가 부르익었음을 看破하고 追擊을 명령하니 生存한 일부의

韓國戰爭史 <第1卷(改訂版)>

1977年 12月 25日 印刷
1977年 12月 30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編纂

發行 國防部

印刷 서울신문사

(不許無斷複製)

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권 (2005)

6 · 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에 북한강 서안의 금산리 북쪽 1.5㎞ 지점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화천 방향으로부터 남하하는 북한군의 전진을 저지하였다.[93] 제3대대가 춘천에 도착할 무렵 북한군은 시내 도처에 포격을 집중하고 있었다. 전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춘천 남쪽지역에서 병력을 하차시킨 후 급행군으로 이동하였다. 춘천역을 돌아 북한강을 건넌 대대는 금산리 북쪽의 횡격을 이룬 217고지 일대에 포진하였다.

(2) 옥산포 및 가래모기전투

국군 제7연대의 경계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제6연대(-)는 SU-76 자주포를 앞세우고 5번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57㎜ 대전차포 중대장 송광보(宋廣保) 대위는 이를 발견하고 제2소대를 속칭 보대이벼루 도선장(지내리 남쪽 1.5㎞)으로 급파하였다. 이 지점은 절벽과 S자형 굴곡으로 이루어져 은폐와 기습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포 방렬을 마친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즉시 2탄을 발사하여 적 자주포에 모두 명중시켰으나, 자주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밀고 내려옴에 따라 부득이 포를 거두어 옥산포로 철수하였다.[94]

국군 제7연대의 대전차포 기습공격을 의식한 적은 첨병을 앞세우고 구간약진으로 공격을 가해 왔고, 10:00경에는 그들의 선두가 옥산포에 이르렀다. 적의 기도를 파악한 대대장은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적을 사농동 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그 주력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때 제16포병대대 제2포대장 이금열 중위는 출동준비가 완료된 제3포대에서 2문을 이끌고 사농동으로부터 적진 500m 지점에 추진방열하고 사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12 : 00경 옥산포를 통과한 적의 주력이 넓은 보리밭에 나타나자 대대장은 사격개시 명령을 내렸고, 보·포협동으로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불시의 협격을 받은 적의 진영은 대혼란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많은 시체를 남겨놓고 도주함으로써 제1대대는 지내리선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두산 관측소에서 전투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13 : 00에 제1대대를 주진지로 복귀시켜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대대가 포지원거리 밖으로 벗어날 우려가 있고, 또한 적으로부터 대대의 측방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무렵에 적은 일부가 춘천 북쪽 4㎞ 지점의 신북리-발산리까지 진출하고 있었다.[95]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퇴각한 적은 SU-76자주포 10대를 앞세우고 다시 옥산포로 공격해 들어왔다. 자주포의 위세에 놀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순간 보대이벼루 도선장에서 옥산포로 철수하여 포를 방렬하고 있던 57㎜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2대의 자주포가 사거리 내에 들어오자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2발이 모두 명중된 1번 자주포는 잠시 움찔하고는 다시 기동하면서 포격을 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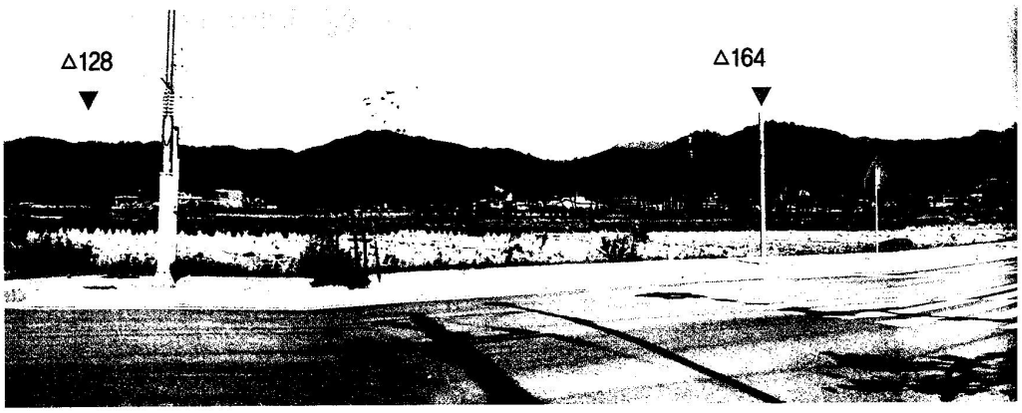
이를 지켜본 소대장 심일(沈鎰) 중위는 자주포에 대한 대전차포 육탄공격을 결정하였다.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친 제2소대장은 도로변 민가에 의탁 대기하고 있던 중 자주포가 가까이 다가오자 포격을 가해 2대를 격파하였다. 이어 자주포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던 승무원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뒤따르고 있던 적 자주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14:00경 서원 방면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96]

164고지와 우두산 등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연대장 이하 장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고 기뻐하였다.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의 쾌거는 모든 장병에게 적의 자주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함께 사기를 앙양하는 계기가 되었다.[97]

앞서 감행된 2차례의 공격에 모두 실패한 북한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1대대의 전술지휘소가 위치한 164고지와 우두산 일대에 강력한 포격을 단행하면서, 약 1개 대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제1대대 진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진전에서 이를 격퇴하고 전과를 확대하였다.

이에 앞서 소양강 북안을 점거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적의 의도를 간파한 연대장은 16:00에 우두산에 설치되어 있던 연대관측소를 보수공사가 완료된 봉의산 진지로 이동시켰다.[98] 아울러 포병대대도 소양강 남안으로 진지를 전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는 17:00에 제1포대를 춘천역 앞에, 제2포대를 봉의산 뒤편에, 그리고 제3포대를 우시장으로 전환하였다.[99]

한편 적은 사단 주공인 제6연대가 소양강 도하에 실패하자 18:00에 서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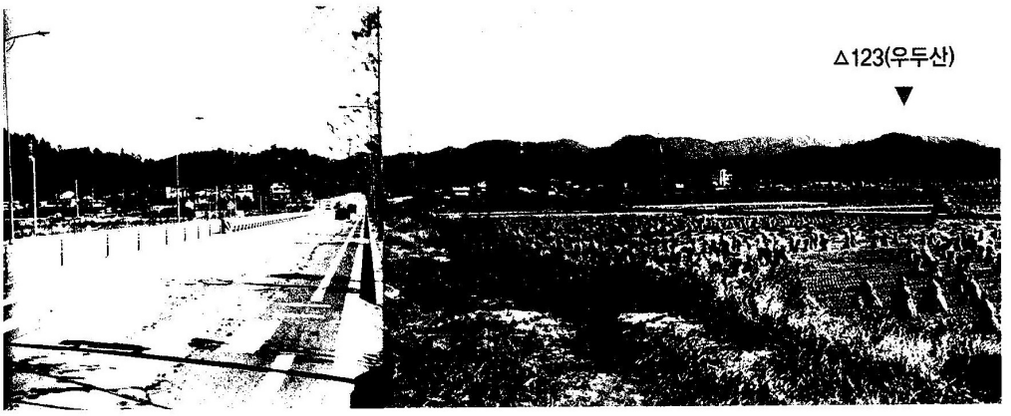
우두평야에서 본 제7연대 주저항선(△128 - △164 - △123). 당시 123고지에는 연대전술지휘소가, 164고지에는 제1대대지휘소가 설치되었다.

한계리 선에서부터 제2제대인 제17연대를 전투에 투입하여 도하를 시도하였다.[100]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야간공격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대대장은 현지의 지형조건상 선공(先攻)을 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19 : 00부터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또한 가래모기의 보리밭을 따라 공격을 가해왔다. 화천-춘천간 5번 도로를 통해 공격했던 적은 그곳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던 까닭에 이번에는 공격로를 변경하여 전진해 왔다.

쌍방간의 교전은 순식간에 전개되었으며,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개활지로 몰려든 적은 증강된 대대의 모든 중화기와 개인화기의 목표물이 되었다. 동시에 아군 포병도 목측으로 포격을 가하였으며, 사거리가 짧았던 포병은 대대와 전진 및 후퇴의 보조를 맞추면서 보병과 동렬(同列)에서 보포협동공격을 가함으로써 적을 거의 궤멸상태로 몰고 갔다.

이어 대대장은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도주하던 적의 일부는 북한강의 깊은 물에 빠져 죽고, 북으로 도망친 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벌판에는 적의 시체가 가득하였다. 이처럼 적은 단숨에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 전술원칙 등을 전혀 무시하였고, 또한 개활지를 밀집대형으로 밀고 내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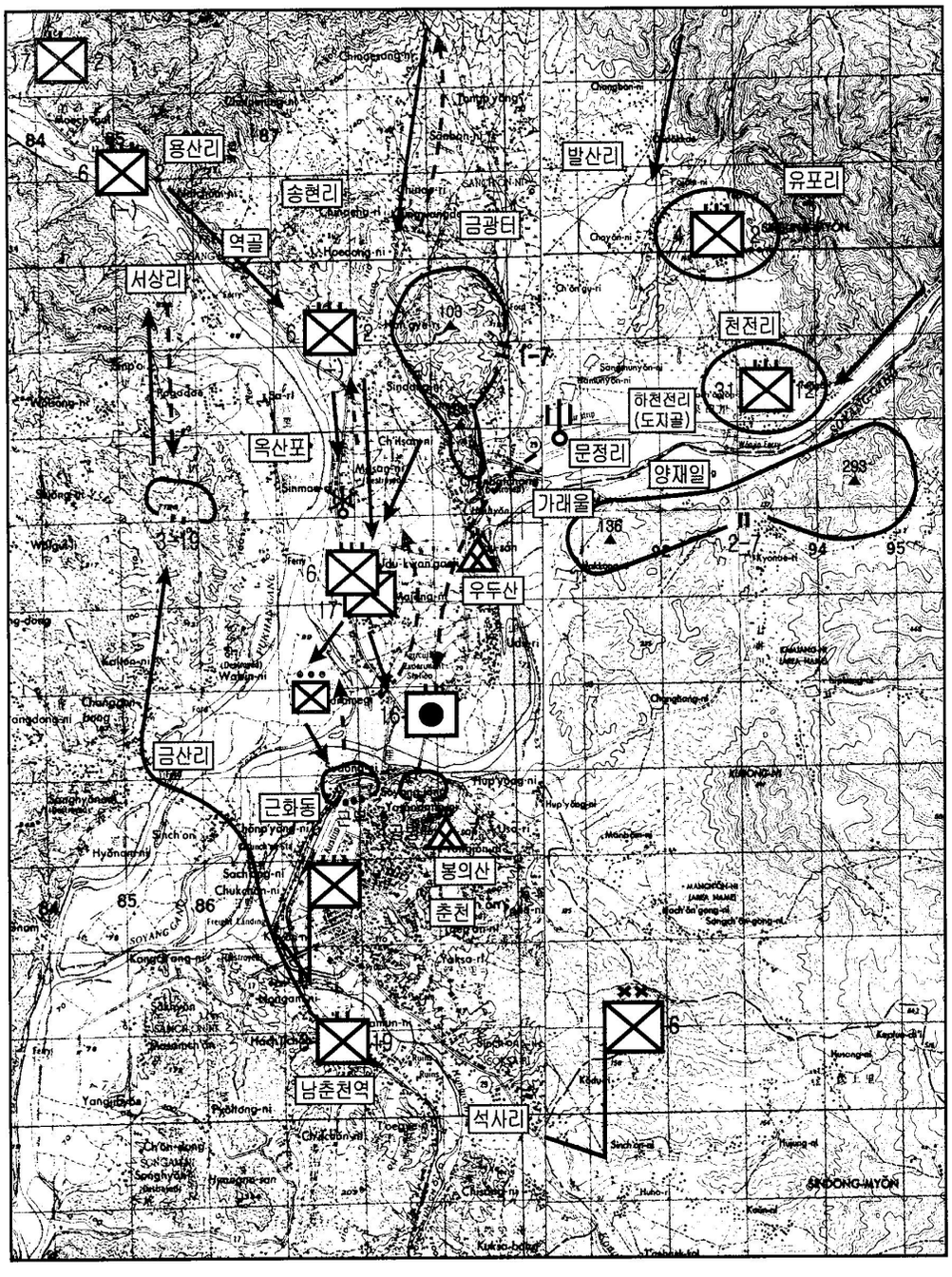
는가 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대오를 맞추어 앞으로 치닫기만 하였다.[101]

한편 05 : 00에 연대 정보주임 김동명 대위로부터 화천 및 양구 방면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제16야전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즉시 대대에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유선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102] 그리고 곧장 본부로 직행하여 연병장에 집결해 있는 병력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전체 인원의 약 30%의 병력이 집결하였음을 감안한 대대장은 우선 현 병력으로 사격할 수 있는 4문의 포를 임시로 편성하여 2문은 천전지서 앞에, 그리고 2문은 사농동에 추진 방렬하도록 하였다.

이러는 동안 포병학교에 교육을 위해 파견되었던 3명의 포대장이 13 : 00경에 귀대하였고, 또한 외출 및 외박 중인 병사들이 귀대함으로써 대대는 건제가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포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이 충분하게 실시되었다.[103]

이는 대대 군수주임 김운한(金雲漢) 소위가 최갑석 상사와 정기백 상사를 대동하고 징발한 민간차량을 이용하여 소양강 북안의 제사공장 앞에 위치한 대대 탄약보급소의 포탄을 소양강 남안으로 옮김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춘천사범학교 학도호국단 학생들이 자원하여 참여하였고, 5,000발의 포탄을

<상황도 5-3> 제7연대 주저항선 전투



비롯한 기관총과 소총류 등의 각종 실탄을 운반하였다.[104] 필요한 포탄을 확보하게 된 포병대대는 포탄의 부족함 없이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3) 제19연대의 증원과 전선 축소

전날 야간에 실시한 제1대대의 반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다음날 날이 밝자 옥산포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날 20:00를 기해 원주역을 출발한 제19연대 주력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청량리를 경유하여 6월 26일 05:00에 춘천에 도착하였다.[105]

이곳에서 참모학교로부터 복귀한 연대장 민병권(閔丙權) 중령을 만난 제2대대는 우두산으로 진출하라는 연대장의 구두명령을 받고 부대를 정비한 후 강행군으로 소양강을 건너 40분 뒤에 우두산에 도달하였다. 대대는 불과 1㎞ 정면의 우두산 기슭에 방어태세를 갖추고 우일선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7연대 제1대대와의 연계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우두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점령한 제2대대는 제5중대를 북쪽에, 이어서 제6중대와 제7중대를 우로부터 좌로 각각 배치하여 화천방향으로부터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토록 하였으며, 제8중대는 우두산 남쪽에서 화력지원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 같은 병력의 증원에 힘을 얻은 제7연대장은 옥산포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기로 하고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에게 08:00부로 공격명령을 하달하면서 전진한계선을 삼거리로 통제하였다. 이때 봉의산의 연대관측소에 나와 있던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제2대대장 최석락(崔錫洛) 소령에게 "제2대대는 08:00를 기해 제7연대 제1대대의 공격을 진지에서 엄호하며, 동쪽으로부터 예상되는 적의 침공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은 공격대대인 제7연대 제1대대가 옥산포로 진격할 때 대대의 전 화력을 동원하여 측방을 엄호하였다.

제7연대 제1대대는 포병의 지원포격과 제19연대 제2대대의 측방엄호사격을 받

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옥산포에 집결하여 공격준비에 골몰하던 1개 대대규모의 적은 제1대대의 기습공격에 대부분이 사살되었고, 나머지는 역골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옥산포를 탈취한 대대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종심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1대대가 옥산포 일대에 집결중인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 07 : 30에 사단장은 포병대대에 전 화력으로 직접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포병대대는 즉시 최대사정으로 옥산포 일대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였다.

국군의 포격이 시작되고 얼마 후 적의 대구경포탄이 봉의산 연대관측소 및 포병관측소 그리고 제2포대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강력한 포격은 제1대대에 대한 제2포대의 포격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옥산포를 공격했던 제1대대가 목표를 탈취하고 삼거리로 진출한 12 : 30에 사단장은 1개 포대를 홍천 북쪽에서 고전하고 있는 제2연대에 배속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장은 14 : 00에 제1포대를 홍천 북쪽의 원편(성산 동북 1.5㎞)으로 이동시켜 한계초등학교로 철수 중에 있던 제2연대를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또한 제2포대와 제3포대는 옥산포에 진출했던 보병의 이동과 소양강 남안으로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요란 및 저지사격을 가하면서 적의 추격을 차단하였다.

13 : 00경 제1대대 진지와 우두산 일대에 강력한 포격을 가하던 적은 자주포를 앞세우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적의 자주포를 격파하기 위해 2.36″ 로켓포를 발사, 명중시켰음에도 결국 자주포를 격파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자주포를 격파하는데 실패하자, 대대장은 삼거리에 배치했던 제3중대를 옥산포로 재배치하고 밀고 내려오는 적과 격렬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적은 일부 병력을 가래묵나루 방향으로 우회하여 공격해왔다. 약 1시간에 걸쳐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대대는 14 : 00경 적으로부터 이탈하여 164고지로 복귀하였다.

(4) 아군의 주요 조치

봉의산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적의 공격력이 예상외로

강력한 점, 우두산 동쪽 천전리 부근의 적의 움직임이 활발한 점, 그리고 양구로부터 증원 병력이 도달하여 총공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포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의 공세이전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사단주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병력운용을 살펴보면, 제7연대 제1대대는 3차에 걸친 북한군의 공격을 악전고투하며 방어하고 있었으나, 제19연대의 3개 대대는 북한강 서안과 소양강 남안 그리고 우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어 적과의 접촉은 거의 없는 유병(遊兵)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이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는 제7연대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를 야간에 협공할 경우 이들의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천연 장애물인 소양강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6]

① 사단은 축차 철수하여 소양강 남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강안에서 격파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소양강 남안의 제1교(서쪽 200m)로부터 후평리에 이르는 선에 진지를 점령하고 적을 저지·격멸하라.
③ 제19연대는 제7연대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남안으로 철수하여 근화동에 진지를 점령한 다음 측방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격멸하라.
④ 제16포병대대장은 제7 및 제19연대의 철수를 화력으로 엄호하라.
⑤ 철수개시 시간은 26일 15 : 00이다.

3) 최후저항선 전투

(1) 최후저항선 진지 점령

164고지로 복귀한 제1대대는 사단장의 작전명령에 따라 15 : 00에 제19연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소양강을 도하하였다.[107] 이어 제1대대는 춘천 남쪽의 석

사리에 집결하여 휴식과 탄약 재보급 등 부대를 정비한 후 다음날 09 : 00경 소양강 남안의 예정된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우두산에서 공격대대와 유기적인 협동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19연대 제2대대에게도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는 제7연대 제1대대를 엄호하고, 이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 아군의 철수기도를 간파한 북한군은 우두산 진지를 향해 포격을 집중한 후 대병력으로 벌판을 가로질러 진전으로 접근하였다. 적이 근접하길 기다리던 제2대대는 포병의 포격과 대대화기의 협동사격으로 그들의 공세를 저지하고 철수병력이 보다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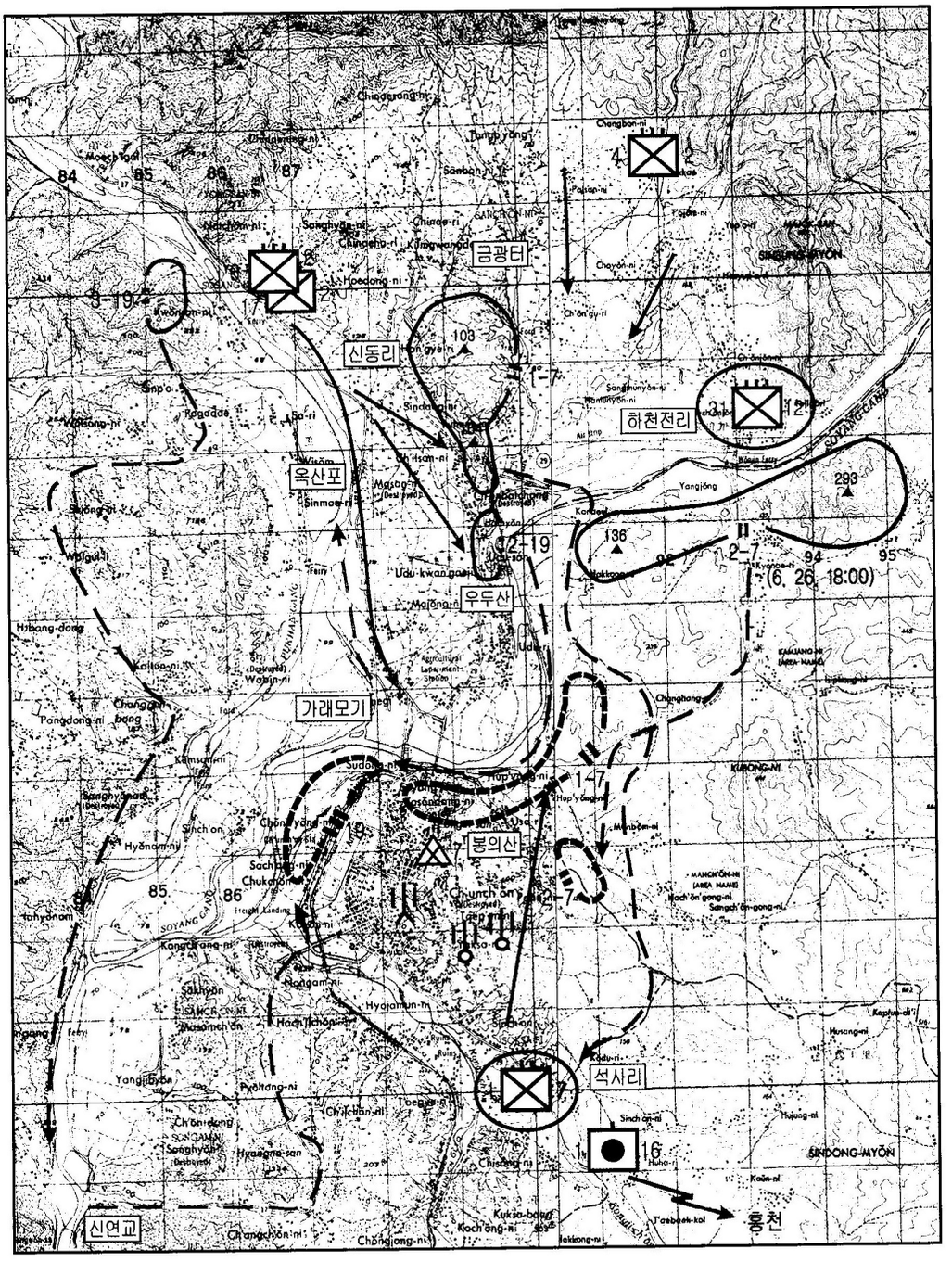
그러나 잠시 후 철수하는 국군을 추격해 온 일단의 적이 옥산포 동쪽 500m 지점의 올미에 침공하여 철수중인 대대와 각축전을 전개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들은 지형상의 불리로 정면공격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병력만을 앞에 내세우고 주력은 사농동을 거쳐 소양강을 향해 접근하였다.

이 동안에도 적은 제2대대를 제압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포격을 집중하였다. 제2대대장은 철수대대에 대한 엄호임무가 완료되자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7 : 00에 대대를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를 제외한 대대는 적의 추격을 격퇴하며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였고, 고립되었던 제5중대마저도 소대별 축차 엄호를 통해 도섭에 성공하여 21 : 00에 대대와 합류하였다.

한편 옥산포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던 무렵 제19연대 제3대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북한강 서안(西岸)의 금산리 일대에는 정적만이 유지되고 있었다. 09 : 00경에 옥산포 북쪽 3㎞ 지점의 저울골 부근에 강력한 적의 포격이 집중되었고, 그 중 일부가 대대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약 20분간의 포격이 끝나고 1개 중대규모의 적이 모진교 남쪽 3.5㎞ 지점의 막은골로 공격을 개시하였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적은 1시간이 지나도록 대대의 유효사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좌우로만 기동하였다. 이는 제3대대가 북한강 동안(東岸)의 전투에 가세하는 것을 저지

<상황도 5-4> 제7연대 최후저항선 진지 점령



하기 위해 대대를 고착 견제하는 행동이었다. 대대장은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예비중대를 투입하여 서상리까지 이들을 추격토록 하였으나, 적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후퇴함으로써 좌측방의 적정을 고려하여 중대를 복귀시켰다. 이후 이들과 대치하던 대대는 북한강 동안으로의 철수명령을 받고 15:30에 철수를 시작하여 의암교를 건너 18:00에 연대의 좌일선으로 춘천역 일대의 근화동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9연대의 주력으로 제2대대와 함께 청량리를 경유하여 05:00에 춘천에 도착한 제1대대는 북한강 강줄기를 따라 춘천 시내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소양강과 북한강 합류지점인 근화동 제방에서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108] 대대는 머지않아 펼쳐질 공방전에 대비하여 이곳으로부터 소양교에 이르기까지 제방 앞뒤로 개인호와 교통호를 구축하였고, 15:00 이후부터 제7연대 제1대대 및 제19연대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처럼 방어정면 축소를 위해 사단 주력이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6월 26일 20:00경 공병대대장 박정채(朴正采) 소령은 사단 작명 제42호(1950. 5. 18)에 의거 소양교 파괴를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방면의 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단장은 공병대대장의 건의를 기각하였다. 일시적으로 춘천을 포기하더라도 아군이 다시 반격을 실시할 경우 소양교가 폭파되면 작전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단장은 교량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북한군 기갑부대의 통과를 저지하라고 명령하였고, 공병대대장은 미리 준비했던 폭파장치를 제거하고 파괴된 트럭 4대를 장애물로 교량 위에 설치하였다.

한편 38도선의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소양강 남안의 가마골－양재일 일대에 전개한 제2대대는 적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적의 도하에 대비하고 있었다. 17:00경 소양강 북안의 천전리 일대에서 자주포와 함께 대규모의 병력이 우두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제2대대는 적의 행렬에 박격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약 1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 제2대대는 춘천의 동쪽 방어를 위해 봉의산 동남

쪽 1.5㎞ 지점에 위치한 후평리로 이동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강행군으로 이동하여 19:00에 부대전개를 완료하였다. 제2대대의 철수명령은 사단장으로부터 15:00부로 실시하도록 하달되었으나, 우두산에서 격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19연대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연대장이 18:00부로 단행토록 한 것이었다.

아울러 연대장은 적이 소양강을 도하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소양교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8중대를 집중 운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제8중대는 81㎜ 박격포 6문을 비롯하여 Cal. 50 기관총 2정과 HMG 4정, LMG 2정 등 전 화력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대였다. 따라서 제8중대는 소양교 남안의 범바위 주변에 집중 배치되었고, 제3대대 제12중대가 대대에 추가로 배속되었다.

한편 공격개시 당일 춘천 동북쪽의 추곡리와 대곡리 선에서 춘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는 춘천 동북쪽 6㎞ 지점의 하천전리 지역까지 진출한 후 진격을 멈추고 사단장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단은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체계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제2사단과의 협조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31연대는 6월 26일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109] 따라서 합동공격으로 춘천을 점령하려던 그들의 기도는 실패하였고, 국군 제7연대가 별다른 손실 없이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110]

(2) 춘천 공방전과 춘천 철수

6월 27일 05:00부터 북한군은 총공격을 위한 준비사격으로 보이는 집중포격을 소양강 남안과 봉의산 일대는 물론 춘천 시내에 가하기 시작하였다. 약 1시간에 걸쳐 포격을 실시한 적은 06:00부터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들은 봉의산 일대의 소양교 정면에 주공을, 그리고 제19연대가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근화동 일대에 조공을 투입하여 공격을 가해왔다.[111]

적의 총공세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한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봉의산과 소양강 등 자연장애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의 공세를 격퇴하기로 결심하고 제7연

□ **집 필 자** 양 영 조 전쟁사1부장 남 정 옥 선임연구원
손 규 석 선임연구원 박 동 찬 연 구 원

□ **전문위원** 중령 서 규 화 중령 김 주 흠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 문 위 원 정 용 근 자 문 위 원

□ **감 수** 유 재 갑 교수(경기대학교) 온 창 일 교수(육군사관학교)
송 요 태 교수(3사관학교) 강 정 현 교수(해군대학)
김 광 수 교수(육군사관학교) 이 명 환 교수(공군사관학교)
석 영 준 교수(육군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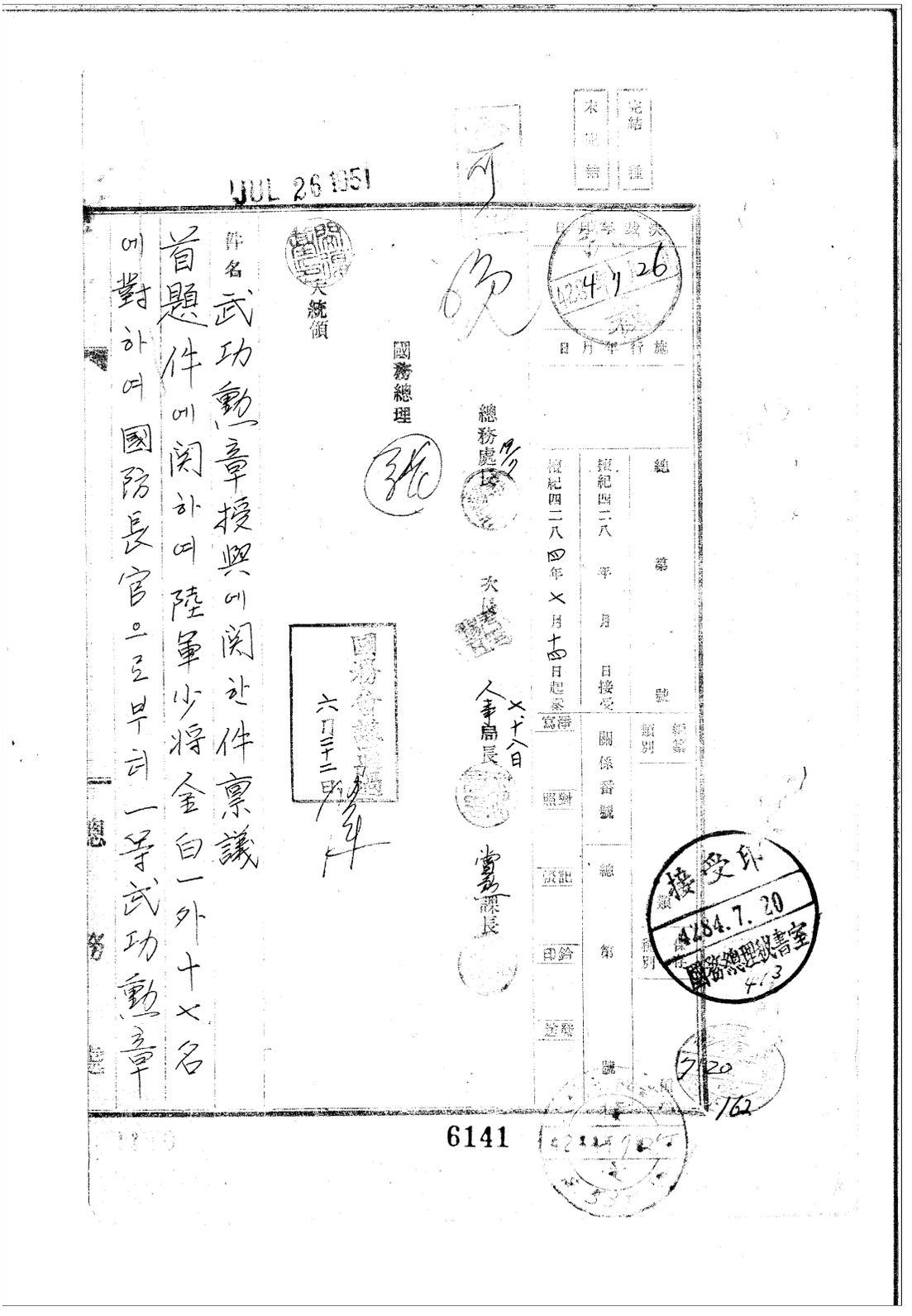
□ **지도 그래픽** 양 승 용

6 · 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년 12월 5일 인쇄
2005년 12월 12일 발행

발행처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서 울 시 용 산 구 이 태 원 로 29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안 병 한
인쇄처 서 울 인 쇄 정 보 산 업 협 동 조 합

3 태극무공훈장 훈장 기록



授與工申이잇사온대 國務會議에서審査한結果左記九名에限하여授與함이適當하다고議決되엿삼기茲에裁決을仰請하나이다

記

一 軍武功勳章授與者

陸軍少將 金白一 戰死
同 劉載興
同 金弘一
陸軍瀋將 白善燁
陸軍大領 咸俊鎬 戰死
陸軍中尉 沈鎰 同

6142

陸軍一等正士　李明宇　同
陸軍二等兵　洪在根　同
同　金龍植　同

否決된者

陸軍中將　蔡秉德
陸軍准將　張遵英
陸軍大領　白忠植
陸軍准將　金鍾文
同　李正一
陸軍大尉領　咸炳善
陸軍中領　鄭震
陸軍大領　林富澤

所屬	階級	軍番	姓名	功績概要
				이글陽東地區에 陷入케 하여 이를 完全히 殘滅하고 後日 永川地區 大會戰에 英雄的인 成功을 하였음
陸軍綜合學校	少將	一二、三二九	金弘一	
步兵第一師團司令部	准將	一〇〇五四	白善燁	七月初旬 始興地區 戰鬪司令官으로서 各地로부터 無秩序하게 南下하는 兵力을 收拾하여 混成旅團및 混成第七師團을 編成이글 適切히 指導하여 漢江沿岸 遲延作戰에 八一粁 砲單三門으로서 十餘日間이나 陣地를 固守하여 友軍後退作戰을 掩護하였으며 第一軍團長으로 清州로 移動하자 化寧 莊一帶에서 我軍後方을 攪亂하려는 敵第一五師團을 粉碎하여 稀有大戰果를 세웠다 六、二五事變發生當時 부터 第一師團長으로서 優秀軍이 서울에 侵入하자 食糧彈丸의 補給이 杜絶되었음에도 不拘하고 部下將兵을 鼓舞하여 敵手中에 있는 金浦를 經由하여 完全히 漢江渡河에 成功하였음

6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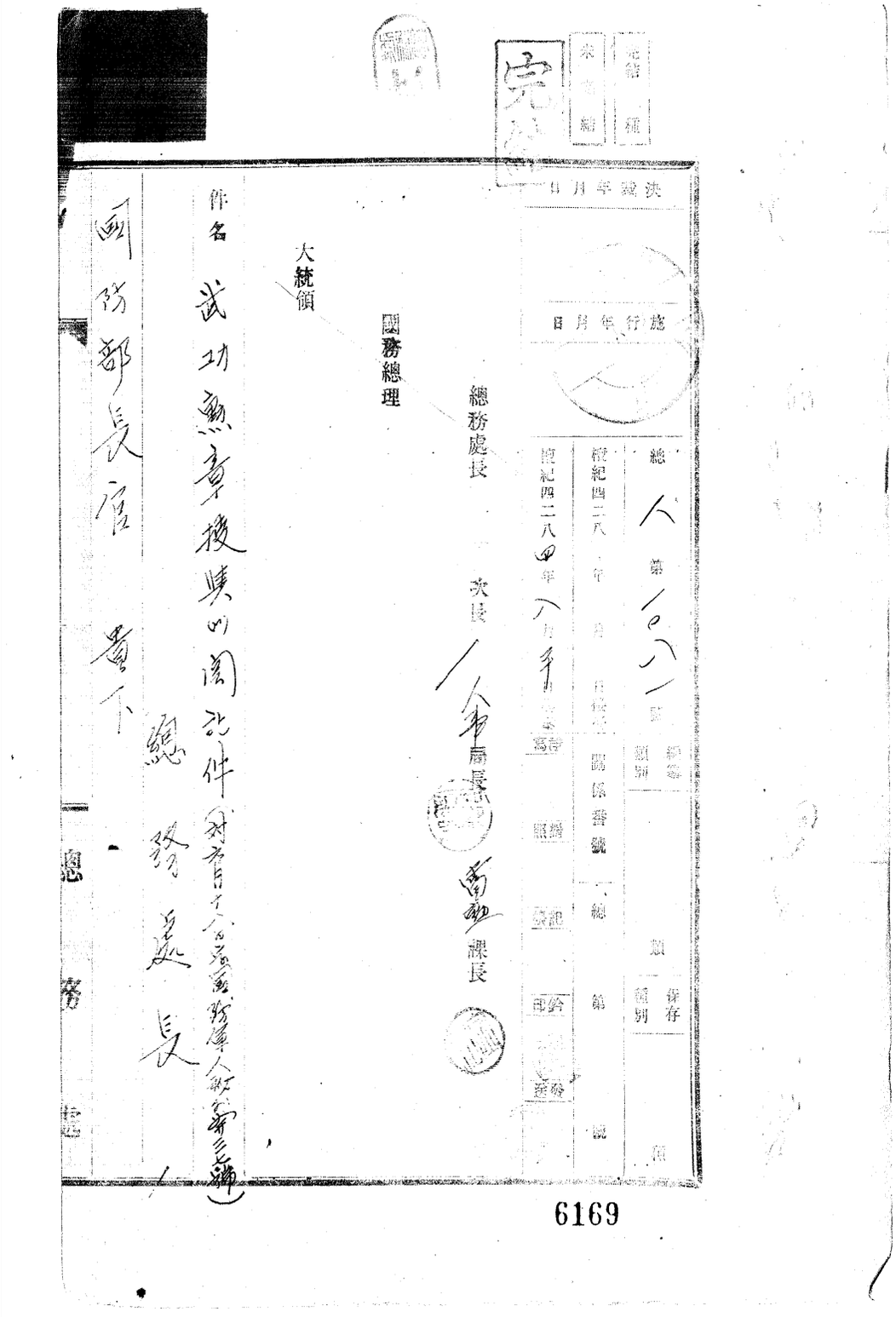
				第一軍團首都師團第一聯隊	大領	一〇〇五〇
				第六師團第七聯隊	中尉	一四四九四
					咸後鎬	沈鎰

永川地区作戰에 있어서는 大邱攻略을 企圖하는 敵敎導師團을 誘導殲滅에 가까운 致命傷을 주었으며 總反擊戰이 開始되자 疾風과 같이 猛進하여 不過二週日間에 首都平壤에 第一着으로 太極旗를 높이 날이였다

第一聯隊長으로 三八線警備에 主動이 되여 있었으며 六·二五事變이 突發하자 全聯隊將兵을 指揮하여 東豆川·議政府地区에서 敵에 甚大한 損害를 주었으며 一時 作戰의 要求에 依하여 漢阿里線까지 後退하자 首都의 防衛를 決意하고 勇戰奮鬪中 敵彈에 맞아 名譽의 戰死를 하였음

六·二六日事變發生과 同時에 戰車를 先頭로 한 敵軍이 春川始陽江을 渡河하려 할 때 微弱한 対戰車砲이였으나 敵戰車를 五百米近距離까지 近接케 한 後 自進砲 一門으로 이를 撃破하여 此後 敵戰車部隊의 侵入을

6166


決裁年月日
施行年月日
總
第
號
關係番號
保存
別
作名
武功褒章授與の閣議件
大統領
國務總理
總務處長
次長
課長
國防部長官
總務處長
6169

閣議決定ノ件

六月十八日

閣議

陸軍少將 金白一外十六名ニ對シ一等武功勳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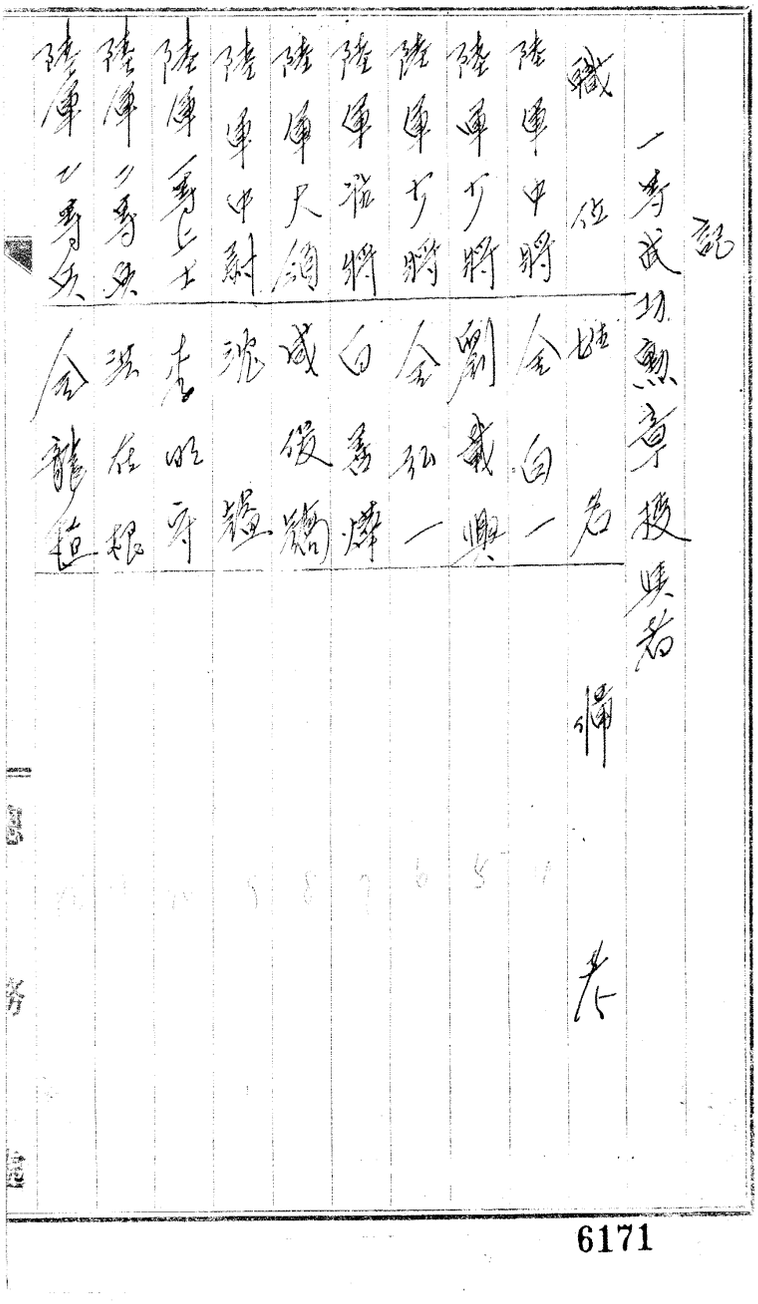
授與ノ閣議決定ヲ左記九名ニハ授與ニ五等

決定ニハ武功勳章證牧ト一等武功勳章

略章九箇ヲ送付シ置度

陸軍大臣

傳達ヲ乞フ



記

一 考武功勲章授與者

職位	姓名	備考
陸軍中將	金白一	
陸軍少將	劉義興	
陸軍少將	金孔一	
陸軍准將	白善燁	
陸軍大領	成俊鏞	
陸軍中尉	張 證	
陸軍軍士	李昭奉	
陸軍二等兵	梁在根	
陸軍二等兵	金龍植	

6171

課長
局長
書記官

總議第六四號
檀紀四二八四年 六月 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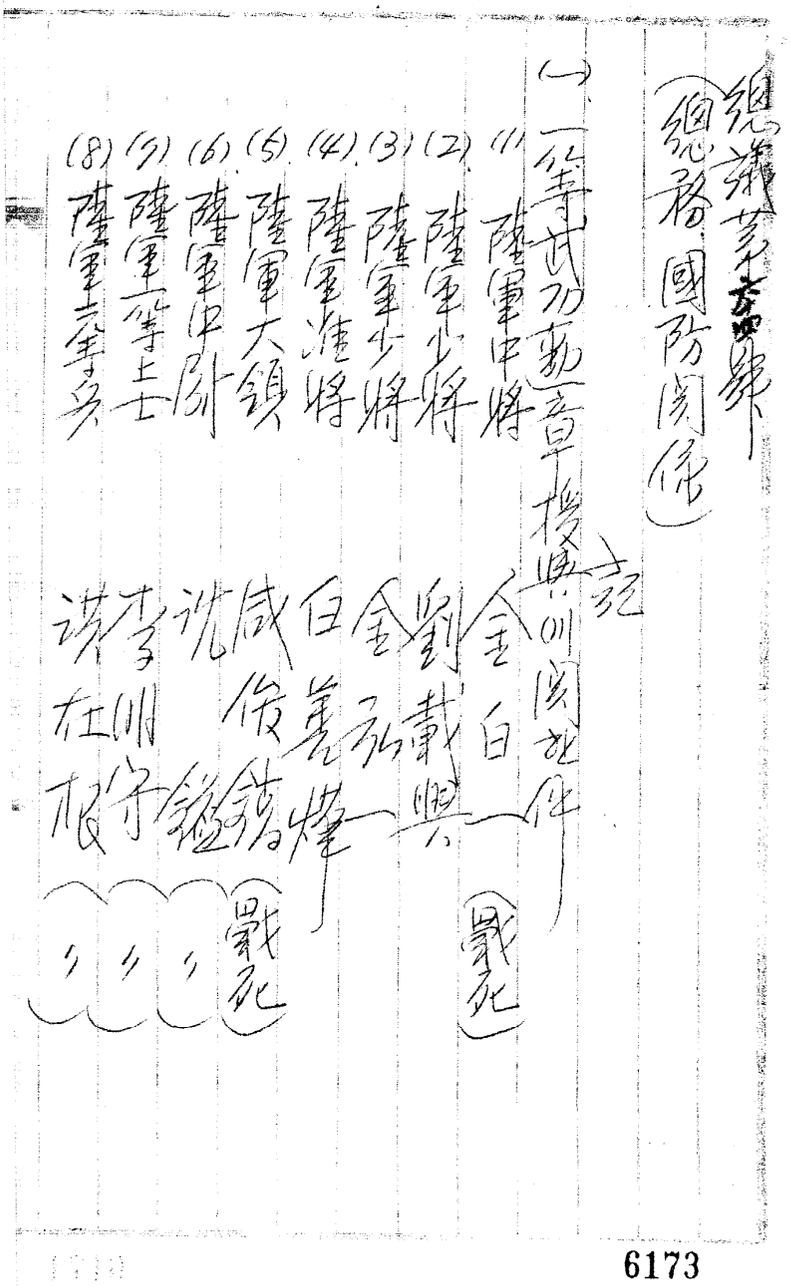
總務處長 李奎弘

總務處長 貴下

國務會議提出案件處理狀況通知의件

檀紀四二八四年六月三日 國務會議室에서 開催한 第七十二回 國務會議에서 貴部處關係案件別紙와如히議決되었아옵기茲以通知하오니善處하심을務望하나이다

6172


總議第十五號
(總務、國防關係)
(一)一等武功勳章授與ノ件
(1) 陸軍中將 金白一 (戰死)
(2) 陸軍少將 劉載興 ノ
(3) 陸軍少將 金弘烈 ノ
(4) 陸軍准將 白善燁 ノ
(5) 陸軍大領 咸俊鎭 (戰死)
(6) 陸軍中尉 沈銓錫 ノ
(7) 陸軍一等上士 李在川 ノ
(8) 陸軍二等兵 許根宇 ノ
6173

(9) 陸軍參謀 金龍起 (戰死)
右九名에 對하여 一等武功勳章을 授與
키로 議決하다

(二) 武功勳章 名稱改正에 關한 件
右件 原則을 承認하고 總務處에 付託
하여 名稱을 研究하여 次回國務會議에
再上程키로 議決하다

6174

國防軍機外發第三七號
檀紀四三八四年六月十八日

國務總理 轉呈
大統領 閣下

國防部長官 李起鵬

等武功勳章授與上申의 件

首題件陸海空軍總司令官丁一權陸軍中將으로부터 別紙와 같이 國務會議에서 被授與者數過多하므로 等事由를 첨부하여 본 건 閣議에 부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5

書面을 勘案하시와 原案대로 裁決하여 주시기를 仰請
하나이다

以上

6176